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제 개발협력을 향한 발걸음 내딛다

- 송경희 위원장, 세계은행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 연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 공유 논의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은행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연례회의 패널토론에 참석(화상)하였다.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은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협의체이자 정책연구기관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관련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패널토론의 주제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 활용 (Breaking Down Data Silos to Harness Network Effects)’으로, 송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의 초청을 받아 토론에 참석했다. 이번 초청은 개인정보 보호 선도국이자 세계 최초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받고자 이뤄졌다.

송 위원장은 토론에서 한국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경험과 제도 내용을 소개하며, 데이터 전송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공유 제도는 정보주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공유 제도 역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패널세션 참석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00-2481)
		담당자	사무관	박선업 (02-2100-2483)

